

주말 도심서 가족과 먹거리·즐길거리 등 '만끽'

●광주 남구 군분로 토요일야시장

10월 첫주부터 5차례... 오후 5-10시 무등시장 앞 1.1km서
곳곳 버스킹 호응...쓰레기 무단 투기·흡연 등 아쉬움도



지난 2일 오후 열린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군분로 토요일야시장'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주성학 기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만족스러웠는데, 시민들의 ‘매너가 아쉽네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일원은 ‘군분로 토요일야시장’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백운광장 일대와 군분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남구가 주최하고 군분로달빛어린이·무등시장상인회 등이 주관한 군분로 토요일야시장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10시에 개최돼 이날로 5회를 맞았다.

해가 저문지 오래였으나, 야시장이 열린 무등시장 앞 1.1km 거리는 형형색색의 간판과 가로등 덕에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이었다.

무등시장 입구부터 월산동 신우신협 본점까지 쪽 늘어선 부스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은 취향껏 먹거리를 골랐다.

양손에 음식을 들고 온 뒤에는 거리 곳곳의 테이블에 앉아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야시장 곳곳에선 음악 공연과 함께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부스가 열려 흥을 돋웠다.

딱지치기 부스 앞에서 한 아이는 손에 있던 딱지를 바닥에 함껏 내리쳐 아버지의 것을 한 번에 뒤집으며 “와! 내가 이겼다”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시장 한 쪽에선 과녁에 다트를 던

져 맞힌 공간에 적힌 선물을 가져가는 이벤트도 열려 시민들은 수면 양말, 고

무장갑, 수건, 애완견 용품 등을 받아갔

다. 주월동에서 온 전홍인(38)씨는 “야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맛

있는 음식을 먹으러 방문했다”며 “아이들이 도로에 마음껏(?) 그림도 그리고 뛰어 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돼 눈치를 사기도 했다.

진월동 주민 김모(50대)씨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축제 다음날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첫 시도였던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로 막을 내린 군분로 토요일야시장에는 5회 동안 총 2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성학 기자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형사처벌 못해

용역 계약한 운전자만 경찰 조사...복구, 업체 행정처분 검토 중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

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가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신고를 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다만 A

씨가 재위탁을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지만 북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0개 수거 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안재영 기자

호송 중 도주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인계

도박 혐의로 붙잡혔다가 도주 18시간 만에 다시 검거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의 신병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20대)씨의 신병을 지난 1일 인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호송된 광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다. 당시 A씨는 손을 등 뒤로 한 채 수갑을 차는 일명 ‘뒷수갑 상태’로 인근 야산으로 향했고,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15시간가량 수풀 속에 몸을 숨겼으나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주민의 신고로 도주 18시간만인 오후 7시15분께 광산구 신용동 주택가에서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 출국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국근 기자

현직 전남도의원 숨진 채 발견

나주에서 현직 전남도의회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나주시 다도면 한 도로에서 전남도의원 A(4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이미 숨을 거둔 A씨를 발견했다. 범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檢, 폐업 숙박업주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내달 6일 선고...출소 후 2년10개월여만 재범

폐업한 숙박업소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재범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 물건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발각되자 범행했다. 이후 버스를 타고 도주한 임씨는 이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받던 광주 서부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고인은 직장인으로 퇴직 후 시작한 모텔에서 따뜻한 주거지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돈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엄벌해 사법 정의의 세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임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안재영 기자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市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주시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직위 상실 위기를 일단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게 벌금 90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선거 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관리당원들에게 “투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안 의원의 직위 유지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달려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의원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안재영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